



전남 vs 서울이랜드



전남 “기필코 이긴다”…내일 승격 운명 건 마지막 승부

K리그2 3~6위 승점 3점차로 물고 물리는 ‘주말대첩’ 예고
서울이랜드와 최종전…승리 땀 최소 4위로 준PO 티켓 확보

K리그2의 운명을 건 ‘최후의 싸움’이 21일 펼쳐진다. 대전하나시티즌 선수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졌던 K리그2 최종전 두 경기가 21일 오후 3시 열린다.

5위 전남드래곤즈는 4위 서울이랜드의 안방으로가 ‘4강 진입’에 도전한다. 창원축구센터에서는 3위 대전과 6위 경남FC의 맞대결이 진행된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3위부터 6위까지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박빙의 대결이다.

대전의 승점이 39(득점 36), 서울이랜드가 38점(득점 32)을 확보했다. 전남은 37점(득점 30), 경남은 36점(득점 39)으로 3위부터 6위까지 승점은 3점 차에 불과하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팀은 역시 대전이다.

대전은 경남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무조건 3위를 확보하게 된다.

무승부를 기록하더라도 3위가 가능하다. 전남과 서울이랜드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대전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무승부를 기록하고, 서울이랜드와 전남경기에서 3점을 확보하는 팀이 나온다고 해도 대전은 4위로 준플레이오프(준PO)티켓을 얻게 된다.

패배의 경우에는 서울이랜드와 전남의 무승부를 기대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전, 서울이랜드, 경남이 모두 승점 39점이 된다. 하지만 다득점에서 서울이랜드보다 앞선 대전이 4위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대전이 패하고, 서울이랜드와 전남 중 한 팀이 승

점 3점을 가져가면 대전은 준PO 자격을 잃게 된다. 서울이랜드도 최종전 승리를 할 경우 무조건 준PO에 진출한다.

만약 비기게 되면 대전과 경남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대전이 이기거나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해야 서울이랜드가 4위 자리를 차지한다.

서울이랜드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경남이 대전을 이긴다면 대전·서울이랜드·경남 3팀의 승점이 39점으로 같아져 계산이 복잡해진다. 다득점에서 뒤져있는 만큼 4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5위와 6위 전남과 경남은 이기고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해도 두 팀은 준PO에 탈락해 내년 시즌 다시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만약 전남이 최종전에서 승리를 챙기고, 경남과의 경기에서 대전이 패한다면 전남은 3위에서 시즌을 마감할 수 있다.

경남이 승리를 거두고 서울이랜드와 전남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다득점에서 앞선 경남이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서울이랜드가 1승 1무로 전남에 앞서 있다. 경남도 대전에 1승 1무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희찬 확진…얼싸안은 손흥민 괜찮나

축구대표팀 귀국…2주간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어렵게 오스트리아 원정을 마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다.

대표팀 선수와 스태프 총 10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19일 정오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선수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은 K리그 선수들로 임원상(광주), 이창근, 권경원(이상 상주), 정태욱, 구성운(이상 대구) 등 5명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한 포르투갈인 코칭스태프가 고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최태욱 코치 등 코칭스태프·지원스태프 5명도 입국했다.

입국 선수·스태프는 공항에서 방역 당국으로부터 증상검사와 문진검사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선수나 스태프는 다행히 없었다”고 전했다.

KFA가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를 자가격리 장소로 제공한 가운데, 선수 5명은 모두 각자 집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해 귀국했다.

스태프 중에서는 최 코치 등 4명이 NFC에서, 나머지 1명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다.

한편,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K리그 선수 중 손준호, 이주용(이상 전북), 윤종규, 주세종(이상 서울)은 현지에서 추가 진단검사를 받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평가전 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대표팀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속팀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다.

황희찬의 확진으로 이번 원정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스태프 확진자까지 더하면 총 10명이다.

평가전 일정이 모두 끝났으나 훈련과 경기 중 황

희찬과 밀접 접촉한 선수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여서 축구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황희찬은 특히 카타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손흥민(토트넘), 이재성(킬), 황의조(보르도) 등과 얼싸안은 바 있다.

황희찬이 독일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최고 스타인 손흥민의 감염 여부를 두고 한국과 잉글랜드 축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타르전 뒤 곧바로 토트넘이 제공한 전세기편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는다.

만약 손흥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22일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경기를 앞둔 토트넘에 큰 낭패다.

KFA가 무리하게 원정 평가전을 감행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FA는 오스트리아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 선수들의 이송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이창한 복싱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대회서 -48kg급 금메달

광주체육중 이창한(3년·사진)이 복싱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창한은 19일 충남 청양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유스 및 주니어 복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48kg급 금메달을 획득, 국가대표가 됐다.

이창한은 2학년 때 전국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랑이 상순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성장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이창한은 준결승에서 조병선(성지복싱클럽)을 빠른 스피드와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5-0으로 꺾었다. 이어 결승에서는 박동욱(천안오성중학교)을 빠른 스텝을 바탕으로 공략해 5-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이창한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시합을 못 뛰었고 훈련량도 부족했는데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돼 기쁘다”며 “더 열심히 운동해서 복싱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김경원 지도자는 “코로나 19로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창한 선수가 평소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훈련한 결과가 성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서구체육회장 보궐선거
정천규 전 서구체육회 부회장 당선

광주시서구체육회보궐선거에서 정천규(사진) 전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당선됐다.

정천규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은 19일 ‘광주시서구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129표 중 유효투표 83표를 얻어 43표를 기록한 이여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정 당선인은 광주시체육회 이사,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상무지구 축구연합회장, 서구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당선인은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전 서구체육회장의 잔여임기인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다.

정 당선인은 “그동안 서구체육회에 쌓였던 불통과 갈등을 씻어내고 소통과 화합으로 공명정대한 서구체육회를 꾸려갈 것을 약속한다”며 “서구체육회 종목별 동호인 여러분을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데뷔 2년 장성우 네번째 ‘백두장사’

〈영암군민속씨름단〉

평창평화회장사씨름대회

오창록 한라장사 아쉬운 2위

데뷔 2년 차 장성우(23·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강력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치고 개인 통산 네 번째 백두장사에 올랐다.

장성우는 19일 강원도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협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민속씨름리그 3차 평창평화회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윤성희(증평군청)를 3-0으로 제압했다.

올해 1월 설날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그는 약 10개월 만에 최강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난해 용인대학교를 중퇴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입단해 실업 무대를 밟은 장성우는 데뷔 첫해 천하장사에 등극했고, 2년 사이 네 차례 백두장사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부터 결승까지 상대에게 단 한판도 내주지 않는 패기를 보였다.

8강에서 백두급 강자 차승진(구미시청)을 2-0

으로 물리친 그는 4강에서 통산 11번째 우승에 도전한 정경진(울산동구청)을 잡채기와 밀어치기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윤성희와 만난 결승에서는 밀어치기와 들배지기, 다시 밀어치기로 세 판을 내리 이겨 단숨에 우승을 확정했다.

오창록(26·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18일 같은 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보경(37·양평군청)에게 2-3으로 석패했다.

한라장사를 4차례 지낸 오창록은 결승에서 대학 선배이자 김보경과 붙어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첫판에서 김보경이 밀어치기로 한 점을 가져오자 두 번째 판에서는 오창록이 밀어치기로 우승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세 번째 판에는 다시 김보경이 차돌리기로, 네 번째 판에서는 오창록이 밀어치기로 점수를 챙겼다.

2-2로 맞선 채 열린 마지막 판, 김보경은 노련미를 발휘해 안다리로 오창록을 쓰러뜨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3관	런, 도굴
4관	내가 죽던 날
5관	마리 퀴리,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
6관	런, 도굴
9관	런
7관 씨네커를	나이스 걸 라이크 유, 담보 봉쇄수원원 카르투스오
8관 씨네커를	텍스 콜렉터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Na Su Bin
나 수 빈
2020. 11.05
11.29
매주 화요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La Bohème
라 보엠
2020. 11. 30 ~ 12. 1
19:30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참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참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 ~ 20
19:30